

“우리는 직장 한술밥... 3·1 마라톤 18년째 출석합니다”



3·1 마라톤을 땀다 광주기아차마라톤클럽

기아차·협력업체 직원 105명 활동 여행·송년회 같이 하며 우애 돈독 회원 38명 출전 3개월 전부터 준비 폴코스 3시간내 완주 10여명 도전

올해로 창단 18년째를 맞은 광주기아자동차마라톤클럽(회장 오상록·이하 기아차클럽)이 제5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38명의 주자와 함께 출전한다.

2003년 1월 창단한 기아차클럽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40여명 동호회 중 유일한 마라톤 동호회다. 회원은 모두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05명이 활동 중이다.

직장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클럽에서도 탈퇴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아차클럽은 창단 이래로 꾸준히 100여명의 회원이 함께해 왔다.

오상록 회장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근무가 끝난 뒤 함께 훈련할 시간이 많아 어느 클럽보다 정과 의리가 두둑다”고 설명했다.

“서로 격려·응원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지도해 주다 보니 끈끈한 동료애로 뭉친 것입니다. 이처럼 똘똘 뭉치는 힘이 18년 동안 클럽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동료애”는 기아차클럽이 자랑하는 최고 장점이 다. 회원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달리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산악 훈련에도, 송년회에도 적극적이다. 회원뿐 아니라 회원 가족도 친해져 휴일에 함께 무등산을 오르거나 제주도 여행에 동참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후, 일요일 오전 6시에 정기 훈련을 하는 기아차클럽은 훈련 장소도 다양하다. 첨단교통공원-장성IC, 화순 너릿재 옛길, 어등산 석봉~광주여대 등 다양한 곳에서 훈련을 해 왔다.



오 회장은 “한 곳에서만 운동하면 지루하기도 해서 훈련 코스를 많이 개발했다”며 “이번 대회를 맞아 3개월 전부터 훈련 계획을 짜 두었다”고 말했다. 기아차클럽은 매달 한 차례씩 ‘공식 대회’를 지정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중 3·1마라톤대회는

창단한 첫 해부터 참가해 왔던 연례행사다.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라 더욱 의미가 깊다.

기아차클럽은 이번 대회에서 ‘239’(폴코스 2시간 39분 이내 완주) 3명, ‘서브3’(폴코스 3시간 이

내 완주) 10명 이상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훈련을 지켜보니 정말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회원 모두가 겨울동안 갖고 뒀던 실력을 발휘해 좋은 기록을 세우고, 부상 없이 무사히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

양현중, 프로야구 투수 연봉킹

KBO 연봉 발표...KIA, 총액 79억원 전체 5위·선수단 규모 6위

KIA 타이거즈의 양현중이 KBO리그 투수 최고 연봉과 14년 차 최고 연봉 자리를 차지했다. KBO가 17일 2020년 KBO 리그 소속선수 등록 및 연봉 현황을 발표했다. 올 시즌에도 ‘연봉킹’은 롯데 이대호다.

2017년 FA 계약을 체결한 이대호는 연봉 25억원으로 4년 연속 연봉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대호에 이어 전체 연봉 2위(23억원)인 양현중은 지난해에 이어 투수 최고 연봉 자리를 지켰다. 14년 차 최고 연봉 자리도 양현중의 몫이 됐다. 기존 최고연봉은 지난해 양의지가 기록한 20억원이다.

2020시즌 KBO리그에 등록된 선수단은 감독 10명과 코치 260명, 선수 588명 등 총 858명이다. KIA는 감독·코치 27명과 선수 61명 등 88명으로 전체 6위. 한화가 93명으로 선수단 규모가 가장 컸고 롯데 92명, LG 90명, SK와 KT 89명 삼성 85명, 두산 84명, NC 75명, 키움 73명 순이다.

투수가 전체 포지션의 50%인 294명이며 내야수 139명, 외야수 104명, 포수 51명이다. KIA는 투수가 29명으로 전체 61명 중 48%다. 이어 내야수 16명, 외야수 11명, 포수 5명 순이다.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512명의 전체 연봉 규모는 739억7400만원으로 지난해 754억7800만원에서 15억400만원 감소했다. 평균 연봉도 1억4448만원으로 1억5065만원에서 4.1% 줄었다.

구단 별 평균 연봉은 NC가 1억6581원으로 가장 높았고, 롯데는 연봉 총액 1위(90억1600만원)를 기록했다. KIA의 2020시즌 연봉 총액은 79억1500만원으로 전체 5위, 평균 연봉은 1억4960만원으로 전체 6위였다.



올해 역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총 161명으로 지난해 보다 5명 증가했다. KIA에서는 양현중을 필두로 최형우(15억원), 나지완(6억원), 김선빈(4억5000만원), 김주찬(4억원), 김윤동(1억3000만원), 나주환(1억2000만원), 문경찬(1억 1500만원), 박준표(1억 1000만원), 박찬호(1억 500만원) 등 10명이 역대 연봉을 받는다.

지난해 ‘세이브왕’ 하재훈은 연봉이 27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수직 상승, 455.6%라는 역대 최고 인상률을 작성했다. 2007년 한화 류현진이 기록한 400%(2000만원→1억원) 기록이 13년 만에 깨졌다.

키움의 ‘젊은 피’ 김하성과 이정후는 2년 연속 해당 연차 최고 연봉 신기록을 작성했다.

한편 올 시즌 최고령 투수는 만 40세9개월10일(1월 31일 등록 기준)의 LG 박용택이다. 최연소인 KT 신인 투수 이강준(만 18세1개월17일)과 22년 차이다. 최장신 투수는 1m98cm인 NC의 새 외국인 투수 마이클 라이트와 한화 신인 투수 신지후, 최단신 투수는 1m63cm의 삼성 신인 내야수 김지찬이다. /김여울 기자 wool@

EPL 51호·5게임 연속골 ... 손흥민의 날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16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3-2 역전 결승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스턴빌라전 역전 결승골... 토트넘 3-2 승리 리그 5위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28)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5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EPL 개인 통산 50골도 채웠다.

손흥민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애스턴빌라와의 2019-2020 프리미어리그(EPL) 26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추가시간 2-1을 만드는 역전골과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을 3-2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지난달 23일 노리치시티와의 EPL 24라운드 결승 득점부터 이어진 연속 골 행진을 정규리그에서만 3경기째,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까지 더하면 5경기째 이어갔다.

2010-2011시즌 프로에 데뷔한 손흥민이 5경기 연속 득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득점은 올 시즌 15·16호(EPL 8·9호) 골이자 2015-2016시즌 잉글랜드 무대에 입성한 이래 정규리그에서 올린 통산 50·51호 골이기도 하다. EPL에서 50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유

일하다. 손흥민이 선물한 승점 3점을 더해 토트넘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승점 39)를 끌어내리고 6위에서 5위(승점 40)로 한 계단 올라섰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막 도전인 4위 첼시(승점 41)와의 격차는 승점 1점으로 줄었다. 다만 첼시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다.

손흥민은 4-2-3-1 포메이션의 ‘원톱’으로 나섰다. 루카스 모라가 왼쪽, 스테판 베르헤베인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거들었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하려 했지만 주도권을 잡은 건 효과적으로 측면 뒷공간을 공략한 애스턴빌라였다.

애스턴빌라는 전반 9분 선제골을 뽑았다. 앤워 엘가지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토트넘 수비수 토비 알데르베이르트가 걷어낸다는 것이 골대안으로 향했다. 이후 몇 차례 실점 기회를 골키퍼 위고 요리스와 수비수 벤 데이비스의 선방으로 넘긴 토

트넘은 알데르베이르트의 ‘결자해지’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알데르베이르트는 전반 27분 손흥민이 올린 코너킥이 상대 선수 머리를 맞고 튀어오르자 골지역 오른쪽에서 과감한 발리 슈팅을 날려 1-1을 만들었다.

흐름을 탄 토트넘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고, 결국 전반 추가시간 손흥민의 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베르헤베인이 오른쪽에서 골지역으로 돌파해 들어가다가 상대 수비수 비요른 앙겔스의 파울을 유도해냈다.

페널티킥 키퍼로 나선 손흥민은 첫 슈팅이 상대 골키퍼 페페 레이나의 선방에 막혔지만, 튀어나온 공을 재차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토트넘의 리드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역전골 빌미를 내줬던 앙겔스가 명예회복에 나섰다.

앙겔스는 후반 8분 책 그릴리시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문전 헤더로 마무리해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손흥민은 후반 48분 상대 수비 실수로 흐른 공을 센터라인 부근에서 낚아채 문전까지 질주한 뒤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았다. /연합뉴스

PGA 별들의 전쟁 승자는 ‘스콧’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우승
강성훈, 2타 뒤진 공동 2위

‘꽃미남’ 골퍼 애덤 스콧(호주)이 정상급 선수들이 출몰하던 특급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스콧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 71·7322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함께 11언더파 273타를 적어냈다.

경쟁자들을 2타차로 따돌린 스콧은 우승 상금 167만4000달러(약 19억8900만원)를 받았다.

스콧은 2016년 캐딜락 챔피언십 우승 이후 PGA 투어에서 4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한국의 강성훈(32)은 대회 마지막 날 2타를 줄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어 스콧에 2타 뒤진 공동 2위(9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스콧 브라운과 맷 쿠처(이상 미국)가 강성훈과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경훈(29)도 6언더파 278타로 공동 13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김시우(24)는 1언더파 283타, 공동 37위로 마쳤다.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킨로이는 5번홀(파5)에서 트리플 보기를 하는 바람에 8언더파 276타로 공동 5위에 자리했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최하위인 68위에 머물러 리비에라 컨트리클럽과의 약연을 끊지 못했다. /연합뉴스